

[기고] 극한기후 시대, 농업수리시설의 선제적 관리가 국가 경쟁력이다

✎ 김정석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수자원관리부장 | ⌚ 승인 2025.10.22 14:34

매일일보 | 지난 8월 중순 무렵이었을까? 해남호(고천암호)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어느 아주머니께서 삶은 옥수수 한 슥을 사무실로 가지고 오셨다. “옥수수 농사가 잘되었고 해남호 지역의 토질에 맞는 것 같다. 올해는 유독 주말에 비가 많이 왔는데 공사 직원들과 옥수수라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종잡을 수 없는 기후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기후변화의 거센 파고를 맞고 있다. 여름철이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불시에 내리는 극한호우는 하천과 농경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존까지도 위협으로 몰고 있다. 반면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13일) 남부 지방의 장마와 좁은 구역의 기록적인 가뭄은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무력화시키며, 건조한 산지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마을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기후, 양극화를 반복하는 기후특성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험’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농업현장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농업용 저수지, 양·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물은 안전 영농의 핵심 인프라이자,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1차 방어선이다. 그러나 상당수 시설은 이미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최근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기능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간당 100mm를 넘나드는 극한호우에 저수지와 배수펌프장의 한계를 드러내거나, 노후 배수갑문의 작동 장애로 인해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반대로 가뭄 시기에는 양수장 관로와 용수로 누수 등으로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한 기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조작을 밤낮없이 이어가고 있지만, 한정된 시설과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제는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유지관리’와 ‘예방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시설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2025년 유지관리 드론 활성화 및 배



사진=김정석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수자원관리부
장

수장 정비보수 계획을 포함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농업인 참여 및 실시간 현장대응을 위하여 수리시설감시원의 전문화와 민관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행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예·경보 대응체계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선 등은 수리시설물의 성능 개선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저수지,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 방조제)과 재해 대비 시설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은 농업의 생명줄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근간이다. 노후화된 저수지와 배수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수·보강하고, 극한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재해대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농업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현장에서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공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 협력하여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극한기후 시대에 수리시설물의 안전은 곧 농어촌의 생존이고,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노후시설의 정비와 예산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미래 재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극한기후에 강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에 접어든 요즘 잦은 비와 낮설은 가을 장마 상황에서도 지역민의 안전과 자연재해 대응에 함께 해주시는 수리시설감시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사는 언제나 농어촌의 물관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석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수자원관리부장